

아직도 진행형... 걸핏하면 늘어지는 재판

9개월 만에 항소심 재판 개최... 첫 재판 열리는데 1년 가까이 걸려 서구청장 변호사법 위반·변호사 성폭력 등 주요 사건 지지부진 광주지법 1심 평균 처리기간 늘어... "쟁점 많지만 너무 더뎠" 지적

검찰이 기소한 주요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지역 정·관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로 쟁점이 복잡하고 불려야 할 증인도 많은데, 법리 논쟁까지 치열해 불거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하지만 일부 사건은 첫 재판이 열리는데 1년 가까이 걸리면서 지나치게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심 선고 뒤 9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 서구청장의 두번째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서 구청장의 항소심은 1심 선고일인 지난해 8월 12일 이후 9개월 만인 5월 11일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통상, 항소장을 접수한 이후 3개월이면 잡히는 일반적 재판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늘어선 셈이다.

검찰이 서 구청장을 지난 2019년 6월 기소해 처음 법정에서 세운 같은 해 7월 이후 1심 선고까지 무

려 13개월이나 걸렸다.

서 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00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서 구청장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일정대로라면 모든 임기를 다 채워도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 하수처리장지 설명회와 실형을 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하수처리업체 대표에게 800만 원을 받고 승진 청탁 대가로 6급 공무원에게 200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광주일보 2020년 9월 4일 6면 단독보도>에 대한 재판은 선고 기일이 오는 30일로 바뀌는

등 4차례나 변경됐다. 재판부가 변호사측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해왔고 선고 일정까지 여러 차례 바뀌면서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무상횡령, 변호사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으로 재판중인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도 지난해 10월 처음 법정에서 선 뒤 혐의를 부인하면서 여태껏 1심이 진행중이다.

◇주요 사건은 1심 선고까지 1년은 기본?=광주지법이 심리중인 주요 형사 사건은 1심이 1년 넘게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장,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과 관련, 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중제 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무원 4명의 재판은 지난해 2019년 11월 기소된 이래 2년 가까이 진행중이다. 공무원 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말 퇴직자 신분으로 바뀌었지만 언제 1심 재판이 마무리될 지도 미지수다.

정 전 부시장 등이 총선을 앞두고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로 받은 재판은 그나마 신속하게 진행됐다. 지난해 6월 기소된 이후 6개월만인 지난해 12월 24일 1심 선고가 난 데 이어 항소심도 5개월 만인 3일 열렸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했는데, 1심 때

다툼이 치열했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공방이 다 시한번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 광주도시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150여부를 발견하고 확보한 것을 놓고 피고인측은 위법 수집 증거임을 주장하며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등을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호반그룹에 특혜성 납품을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는 이용섭 광주시장 친동생의 재판도 지난해 1월 기소된 뒤 1년 4개월을 넘겼지만 1심 선고까지는 갈 길이 멀다. 재판이 늘어지는 것은 통계로도 파악할 수 있다.

광주지법의 경우 전년도 형사 합의부 1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해 4월(156.3일), 3월(163.9일), 2월(173.8일), 1월(114.9일) 등이었다. 반면, 올해는 4월(179.5일), 3월(184.6일), 2월(187.0일), 1월(144.2일) 등으로 처리 기간이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형사단독 재판부 1심 사건 처리기간은 1월(135.3일)→2월(154.1일)→3월(152.6일)→4월(148.9일)→5월(150.1일)→6월(146.7일)로 집계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주택 붕괴 4명 사상 공사업체 대표 구속

리모델링 과정 부실 시공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주택 붕괴 사고의 책임으로 30대 공사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리모델링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4일 지은 지 48년이 된 광주 동구 계림동 한 목조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해 인명피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정밀조사 결과 한옥식인 해당 주택은 내부 벽체를 절거하는 과정에서 목조 기둥과 보강재 사이의 고정 이부설하게 시공돼 지붕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A씨를 포함해 건설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일용직 노동자 등 모두 4명이 잔해에 매몰됐다. 119구조대가 약 1시간 동안 매몰자를 순차적으로 구조했으나,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40분과 1시간 시차를 두고 구조 작업 후반부에 발견된 납품업체 관계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 2명은 숨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한 책임을 물어 집주인 B씨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주택을 찾았으므로 용도 변경하고자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허가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프로포폴 불법 투약

배우 하정우 약식기소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해 말 하씨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정우는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며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검찰은 2019년 1월께부터 9월 사이에 이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6월 모평, 선택과목 평이...공통과목 킬러문항은 어려웠다

국어,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

문·이과 통합 체제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3일 실시된 6월 모의평가는 선택과목이 평이하게 출제된 반면 공통과목의 킬러문항 난이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주관해 수능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다. 재학생만 치렀던 3·4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달리 졸업생도 응시 가능한 '수능 전조전'으로 불린다.

이날 모의평가에서 국어 영역의 경우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입시업체들은 분석했다. 다만 공통과목에서 독서 부분이 새로운 형태의 지문으로 출제돼 응시생들을 당황하게 했다.

지문도 3개에서 4개로 늘었는데,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관련된 종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소재로 한 지문도 나왔다. 문항은 지난해 수능보다 평이하게 출제됐다.

국어 선택과목에서는 화법과 작문보다 언어와 매체가 어렵게 출제됐다는 분석이다.

수학 영역에서도 수험생들은 선택과목보다 공통과목을 어려워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통과목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지만 킬러문항이 더 어려워졌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에 따라 문항간 난도 차이도 커졌다.

수학 선택과목을 보면 확률과 통계는 기존 기출문제와 비슷한 형태가 많아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 미적분에서는 미분 관련 문항이 다소 까다롭고 풀이 시간이 걸렸으나 킬러문항 수준으로는 이어지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치러지는 3일 광주시 서구 광덕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날 치러진 시험은 문·이과 통합 체제로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첫 모의평가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않았다. 기하는 익숙한 문항 패턴이어서 수험생들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 6월 모의평가는 EBS 직접연계 지문 없이 처음 치러진 시험으로, 기존 교재의 지

문들과는 소재만 비슷하게 나와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재수생·반수생도 응시한 만큼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대학 목표를 정하는 기회로 삼아

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수능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국어 선택과목을 확실히 정해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적통지표는 오는 30일 배부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부도직전 땅, 싸게 팝니다

▶ 광주시내 요지

▶ 오피스텔 허가 득

문의. 010-2928-0202

투자하실 분! 모십니다

▶ 투자금 - 3억 이상

▶ 원금 - 법적 보장
(담보1순위 또는 충분한 담보제공)

▶ 수익금 - 월 1부 이상 보장

(주)오천. H. 010-3605-5000